

마스크 안쓰고 거리두기 느슨...초심 잃고 경각심 풀렸다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속출 '초비상'

불야성 유흥가 QR코드 활용·출입명부 작성도 거의 안해 다중밀집시설 등 경계심 실종...방역 지침 철저 준수 절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감염 경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실상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상황이라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등 일상 속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을 맞아 9명의 지역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더위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때문인지 일상 속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모습들이 도심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난 27일 밤 10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와 동구 구시청 일대. 이곳은 모임과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아랑곳 하지 않고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마스크를 쓴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더 힘든 실정이었다. 그나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젊은이들도 그저 턱에 걸치고만 있어 마스크의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

대부분 주점들은 빈자리를 찾아 보기 어려워졌으며, 주점 입구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지난 27일 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주점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 다닥다닥 붙어앉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대기행렬이 잇따랐지만 일대를 찾은 시민들에게 거리두기는 잊혀진 듯 보였다.

방역당국이 외식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은 기본으로 하며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

기, 술잔 돌리지 않기,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기를 권고했지만 이곳에서는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곳도 거의 없었

다. 방역당국이 추진기로 한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시스템을 활용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거의 없었다. 불과 몇 주전만 해도 형식적으로나마 지켜졌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수도권 내 소규모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내 전파가 시작됐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데다, 방역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광주시민들의 경각심은 풀어진 대로 풀어진 상황이었다.

유흥가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코인노래방, PC방 등도 마스크 착용 없이도 출입이 용이 가능했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업소도 없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발열체크와 출입명단 작성 등은 실시하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난 27일 오후 서구 치평동의 한 헬스클럽도 30명이 넘는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은 없었다. 이날 헬스클럽을 찾은 김모(여·25)씨는 "날씨도 덥고 운동을 하면 땀이 나는데, 어느 누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실내 운동일 경우 마스크를 쓰고, 호흡이 힘들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는 등 운동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상황을 맞는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방역 관련 전문가들은 "일상에서의 경계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약해지면서 시민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한명 한명이 방역 담당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지역 첫 학생 확진자 발생에...전남교육청 감염 차단 비상

목포하당중 원격수업 전환

전남지역 교육기관이 지역 첫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목포하당중 학생(전남 23번)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해 1주일 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전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들어가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도 교육청은 곧바로 하당중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뒤, 이날부터 곧바로 1학년 학생 전원과 교직원 등 255명에 대해 진단검사 들어갔다. 2학년과 3학년에 대해서는 추이를 살펴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진 학생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간 지역아동센터(교육문화공동체)와 실내 체육시설(복싱마스터)에서 활동한 사실에 주목해 필요한 조치도 취했다. 해당 학생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지역아동센터 관련자 35명(8개 학교), 실내 체육시설 관련 13명(5개 학교)의 명단을 각 학교에 통

보한 뒤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토록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실내체육시설 관련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13개 학교와 접촉자가 없지만 인근에 있는 5개 학교 등 18개 학교에 대해서 7월1일까지 사흘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추이를 봐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하당중을 방문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확진자 발생 현황과 후속 조치 상황 등을 설명했고, 추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故 조비오 신부 국민훈장, 소화자매원에 영구 보관

"5·18 의미 되새기는데 도움 되길"

고(故) 조비오 신부의 국민훈장 모란장이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에 영구보관된다.

소화자매원은 28일 오후 자매원 역사관에서 조비오 신부의 국민훈장 모란장 소장식을 개최했다.

조비오 신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당국과 협상하는 등 수습위원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 받아 지난 10월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훈장을 받았다.

조비오 신부의 다섯째 동생인 조명현(72)씨가 이날 고인을 대신해 수상한 훈장을 소화자매원 조영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조 신부의 고귀한 삶의 한 장을 보여주는 소화자매원에 국가훈장인 모란장을 영구보존하는 게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광주시민들이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가족들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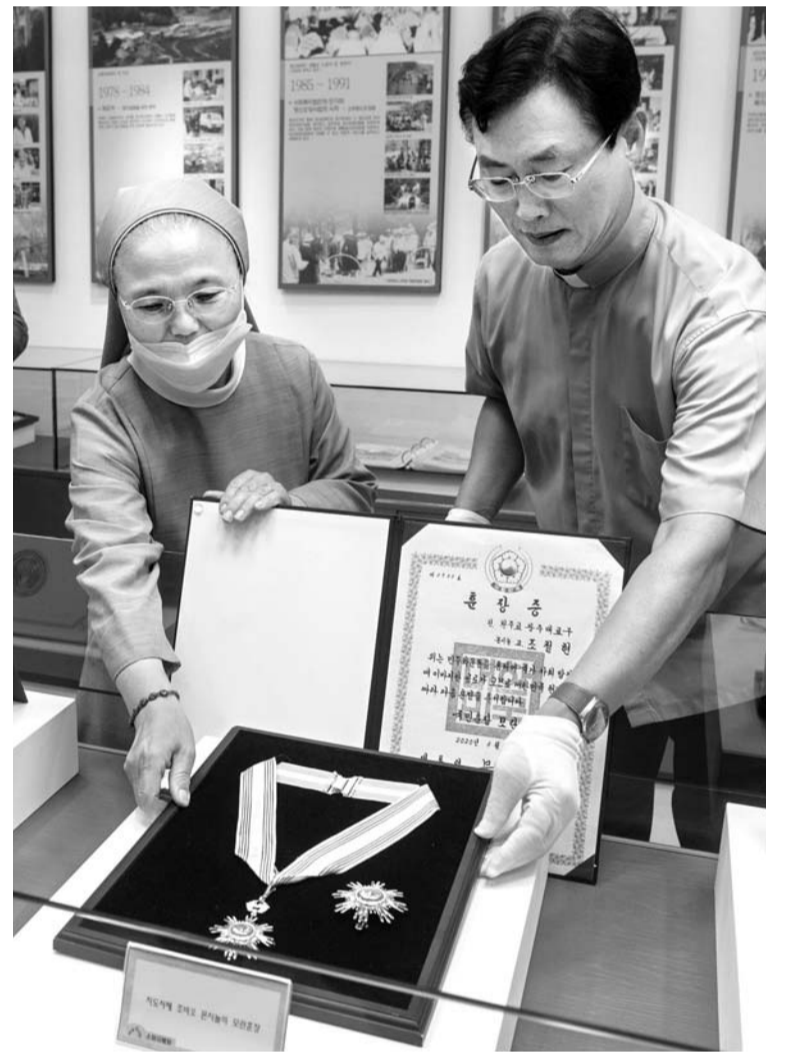
조영대 신부는 "아직도 음식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참된 민주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게 조비오 신부의 표창수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화자매원은 지난 1985년에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조비오 신부가 평생 돌본 곳이다.

소화자매원은 성인 여성 정신지체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다.

취재팀 투병을 하던 조비오 신부는 당시 "도사와 유품을 소화자매원에 기증해 달라. 몸 안 장기는 아픈 환자를 위해 써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지난 10월 6·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 때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수여된 국민훈장 모란장이 28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소화자매원 역사관에 소장되고 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오른쪽) 소화자매원 대표이사사와 이영희 엠마누엘 총원장수녀가 보관함에 훈장을 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병원 부지 내 천막 시위, 퇴거불응죄 물을 수 있을까

설치 장소 문·담 없어 무죄 선고 업무방해 등은 벌금 100만원

누군가 전남대병원 부지 내 기념탑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한다면 병원측이 '퇴거불응죄'를 물을 수 있을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광주전남지역지부장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안에 세워진 '병원 100주년 기념탑' 앞 통행로 인근에 천막(가로 4m·세로 3m)을 설치,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A씨는 천막을 철거하고 병원 소유 부지에서 나가라는 병원측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며칠간 머무르면서 병원측 신고로 검찰에 넘겨졌다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 재판에 이르렀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18일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대표단 선출 회의'가 열리는 전남대병원 강당에 허락없이 들어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방화)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복학 부장판사는 퇴거불응죄의 경우 "천막을 설치한 장소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 건조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조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립이나 물건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통제가 없어 일반적 보행으로 쉽게 넘을 수 있다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주거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천막을 설치한 장소에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문·담이 설치되지 않은 점,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접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점, 횡단보도에서 병원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출입 통제 시설이 없고 누구나 천막이 설치된 장소를 드나들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퇴거불응죄' 객체가 되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지부장의 업무방해와 방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